학술교류

APRIM-2026 참가기



李珩睦 會員 (천체물리학)

1. 국제천문연맹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 그림 1)은 천문학의 발전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천문학자 전문기구이다. IAU는 1919년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연구협의회(International Research Council) 창립총회를 계기로 출범하였다. 당시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던 천문 관측과 연구를 국제적으로 조정하고, 천체의 명칭과 천문학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제기구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하나의 하늘 아래(Under One Sky)'라는 주제로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림 1] 국제천문연맹의 공식 로고. 영어 명칭의 약자인 IAU와, 또 하나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명칭 Union Astronomique Internationale의 약자인 UAI가 겹쳐 표현되어 있다.

IAU의 기본 목적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천문학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천문학 연구뿐 아니라 학술교류, 교육, 과학문화 확산, 개발도상국의 연구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IAU는 천체와 천체 표면 지형의 공식 명칭을 정하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다. 행성, 위성, 소행성 및 이들 천체의 지형에 대한 명명 원칙을 마련하고 공식 명칭을 승인함으로써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천문 상수, 좌표계, 시간 체계와 같은 기본적인 천문학적 기준을 논의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AU는 전 세계의 전문 천문학자로 구성된 개인회원과 각국의 천문학계를 대표하는 국가회원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현재 개인회원과 젊은 연구자 회원을 합하여 약 1만 3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에 IAU 회원국이 되었으며, 2026년 현재 222명의 천문학자가 IAU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천문대를 대표 기관으로 하는 Observer 회원국이며, 등록 회원은 1명이다.[1)]

개인회원들은 연구 분야에 따라 9개의 학술 분과(Division), 전문위원회(Commission),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한다. 주요 정책은 3년마다 열리는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결정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회가 이를 수행한다.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 천체물리학연구소(Institute d'Astrophysique de Paris, IAP)에 자리하고 있다.

IAU의 대표적인 활동은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와 지

1) https://www.iau.org/Shared_Content/Contacts/OrganizationLayouts/Organization_Profile.aspx?ID=23852

원이다. 매년 여러 차례의 IAU 심포지엄을 열어 천문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대규모 심포지엄, 주제별 집중회의 및 분과별 학술회의가 함께 열린다. 총회는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주요 천문학적 정의와 국제 기준, 조직 운영 및 장기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5년 하와이에서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2021년 제31차 총회를 부산 BEXCO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1년 연기되어, 2022년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는 IAU 역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된 총회였다. 한국에 앞서 아시아에서 IAU 총회를 개최한 국가는 인도(1985년), 일본(1997년), 중국(2012년)뿐이었다.

최근 IAU의 활동 범위는 전문 연구를 넘어 교육, 대중 소통 및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문학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과학 역량을 높이는 천문학발전국(Office of Astronomy for Development),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천문학홍보국(Office for Astronomy Outreach), 학교 천문교육을 지원하는 천문학교육국(Office of Astronomy for Education), 젊은 천문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IAU는 「2020–2030 전략계획」을 통하여 연구 교류뿐 아니라 교육과 개발, 포용성과 다양성, 젊은 연구자 지원, 과학의 자유와 책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IAU는 천문학 분야의 국제 학술단체이면서 동시에 천문학적 기준과 명칭을 조정하는 국제기구, 세계 천문학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형 관측시설과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 천문학에서 IAU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연구자들을 연결하고, 천문학의 성과가 교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Asia-Pacific Regional IAU Meeting, APRIM)는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이 후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학술회의이다. 특정 연구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IAU 심포지엄과 달리, APRIM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천문학자들이 여러 연구 분야의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젊은 연구자와 천문학 기반이 성장 중인 국가의 연구자들에게 국제적인 발표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1. APRIM의 시작과 발전

APRIM은 1978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IAU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현대 천문학 연구가 성장하고 있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관측시설과 천문학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내 국가들의 지리적 거리가 멀고 연구 환경의 격차도 컸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모색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학술회의가 필요하였다. APRIM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창설되었으며, 이후 대체로 3년 간격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APRIM은 표 1과 같이 개최되었다. 특히 1987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APRIM 당시에는 한·중 수교 이전이어서 한국 참가자들의 중국 입국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는 홍콩에서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귀국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천문학자들도 참가하여 남북한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표 1] 역대 APRIM 개최 연도와 개최지 목록

회차	연도	개최지
제1차	1978	웰링턴, 뉴질랜드
제2차	1981	반둥, 인도네시아
제3차	1984	교토, 일본
제4차	1987	베이징, 중국
제5차	1990	시드니, 호주
제6차	1993	푸네, 인도
제7차	1996	부산, 대한민국
제8차	2002	도쿄, 일본
제9차	2005	발리, 인도네시아
제10차	2008	쿤밍, 중국
제11차	2011	치앙마이, 태국
제12차	2014	대전, 대한민국
제13차	2017	타이베이, 타이완
제14차	2020	퍼스, 호주 (코로나19로 취소)
제15차	2023	고리야마, 일본
제16차	2026	홍콩

이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APRIM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왔다. 한국은 1996년 부산에서 제7차 회의를(조직위원장: 이형목), 2014년 대전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대전 회의는 한국 천문학계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서 IAU 총회와 심포지엄을 비롯한 주요 국제천문학 행사를 유치하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APRIM은 대체로 3년마다 열렸으나, 모든 시기에 정확히 3년 간격이 유지된 것은 아니다. 1996년 부산 회의 이후 다음 회의는 2002년에 열렸으며, 2020년에 예정되었던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되었다. 이후 2023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에서 APRIM 2023이 개최되면서 대면 지역 회의가 재개되었다. 일본에서 APRIM이 열린 것은 1984년 교토와 2002년 도쿄에 이어 세 번째였다.

가장 최근 회의인 APRIM 2026은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천문학과 천체물리학뿐 아니라 우주과학, 우주 지속가능성, 천문교육, 대중홍보와 과학소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행사는 기조강연, 분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 패널토론, 워크숍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자와 학생 수백 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APRIM이 단순한 연구 발표회를 넘어 지역 천문학 공동체 전반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학술·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3. APRIM의 성격과 주요 역할

IAU 지역회의는 보통 IAU 총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되며, 해당 지역의 국가 천문학회 등의 초청을 받아 개최된다. 다음 개최지는 일반적으로 현 회의가 끝날 때 지역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IAU

가 개최지를 직접 선정하거나 반드시 공식 승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정된 개최지와 조직위원회는 IAU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실제 회의 운영은 개최국의 지역조직위원회가 주도하며, IAU는 회의의 국제적 지위와 학술적 연계를 뒷받침하고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APRIM의 가장 큰 특징은 다루는 연구 분야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하나의 전문 주제에 집중하는 IAU 심포지엄과 달리 APRIM에서는 태양과 태양계, 별의 형성과 진화, 성간물질, 은하와 은하계,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중력파와 다중신호 천문학, 우주론, 관측기기, 데이터과학, 천문교육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이 동시에 논의된다. 따라서 학술조직위원회의 규모와 참가자 수도 일반적인 IAU 심포지엄보다 큰 편이다.

또한 APRIM은 다음과 같은 지역적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대형 관측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 지역에는 Subaru, FAST, LAMOST, KAGRA, ASKAP, KVN을 비롯한 다양한 관측시설이 있으며, ALMA 등 대형 국제시설에 참여하는 주요 연구기관과 연구진도 다수 분포해 있다. APRIM은 이와 같은 시설을 활용한 공동연구와 미래 관측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둘째, 천문학 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적인 대형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전문 천문학자와 연구시설이 아직 부족한 국가도 있다. APRIM은 후자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국제적인 연구망에 참여하고 교육·훈련 및 공동연구 기회를 얻도록 지원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의 성장을 돕는다. IAU는 지역회의가 젊은 천문학자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RIM에서는 학생과 박사후연구원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여행경비 지원, 멘토링, 경력개발 및 연구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넷째, 천문학 연구를 교육, 대중소통 및 사회적 발전과 연결한다. 최근 회의에서는 천문교육, 천문학을 통한 개발, 여성과 소수집단의 참여, 원주민 천문지식, 어두운 밤하늘의 보호, 위성군과 우주쓰레기 문제 등 천문학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4. IAU의 다른 지역회의

현재 IAU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지역회의는 세 종류이다.

- APRIM: Asia-Pacific Regional IAU Meeting
- LARIM: Latin American Regional IAU Meeting
- MEARIM: Middle-East and Africa Regional IAU Meeting

APRIM과 LARIM은 모두 1978년에 시작되었고, MEARIM은 2008년에 창설되었다. IAU는 원칙적으로 두 IAU 총회 사이의 기간에 이 세 지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지역회의를 후원한다.

LARIM(Latin American Regional IAU Meeting)은 라틴아메리카 천문학계를 대표하는 지역회의이다. 남미와 중미의 천문학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 행사로 발전하였다. 2023년 11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7차 LARIM이 열렸으며, 제18차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

최될 예정이다. LARIM은 특히 칠레의 대형 관측시설을 비롯한 지역의 뛰어난 관측환경과 연구 성과를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인력 양성 및 연구 발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EARIM(Middle-East and Africa Regional IAU Meeting)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천문학 교류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시작되었다. 제1차 회의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서 열렸다. 2023년에는 다시 카이로에서 회의가 개최되었고, 제7차 MEARIM은 2025년 11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천문학 연구기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교육, 연구시설 활용 및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2028년 차기 개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유럽 지역 IAU 회의(European Regional IAU Meeting)도 개최되었다. 유럽 지역회의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1983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7차 회의가 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유럽남방천문대(ESO), 유럽우주국(ESA), 유럽천문학회(EAS) 등 독자적인 지역 협력기구와 대규모 학술회의 체제가 발달하면서, 현재 IAU가 열거하는 공식 지역회의에는 APRIM, LARIM 및 MEARIM의 세 종류만 포함된다.

5. 제16차 APRIM (APRIM 2026)

제16차 APRIM인 APRIM 2026은 2026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장소는 홍콩섬 완차이에 위치한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HKCEC)이며, 홍콩대학교(The University of Hong Kong) 산하 Laboratory for Space Research(LSR)가 지역조직위원회와 함께 대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대회의 공식 슬로건은 “Science, Cooperation and Friendship”으로, 첨단 천문학 연구성과의 교류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자 간 협력과 우호 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고, 중국을 상징하는 용이 원형으로 별과 은하를 감싸는 모습의 공식 엠블렘(그림 2)도 일찌감치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림 2] APRIM-2026의 공식 엠블렘. 용이 별과 은하를 둘러싸고 있으며, 홍콩의 상징인 고층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APRIM 2026의 핵심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천문학·천체물리학·우주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가 및 기관 간 연구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연구자들이 새로운 공동연구 기회를 발굴하고, 대형 관측시설 및 우주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자들의 경력 단계와 국적에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방적·포용적 학술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수월성뿐 아니라 교육, 국제협력, 과학소통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번 회의는 천문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전통적인 학술회의를 넘어, 차세대 대형 관측시

설과 우주탐사,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향후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1. 주요 학술 프로그램

APRIM 2026에서는 은하·우주론에서부터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중력파, 별과 행성, 전파천문학, 천문관측 및 우주개발에 이르기까지 현대 천문학의 주요 연구분야를 포괄하였다. 공식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9개의 주요 주제가 제시되었다.

1. 천문학 교육·대중소통 및 과학문화
2. 은하, 활동성은하핵(AGN) 및 고적색편이 우주
3.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4. 중력파 천문학
5. 별과 행성의 생애
6. 전파·밀리미터·서브밀리미터 천문학
7. 천문 탐사 및 시간영역 천문학
8. 현재 및 차세대 대형 천문시설
9. 우주 지속가능성(Space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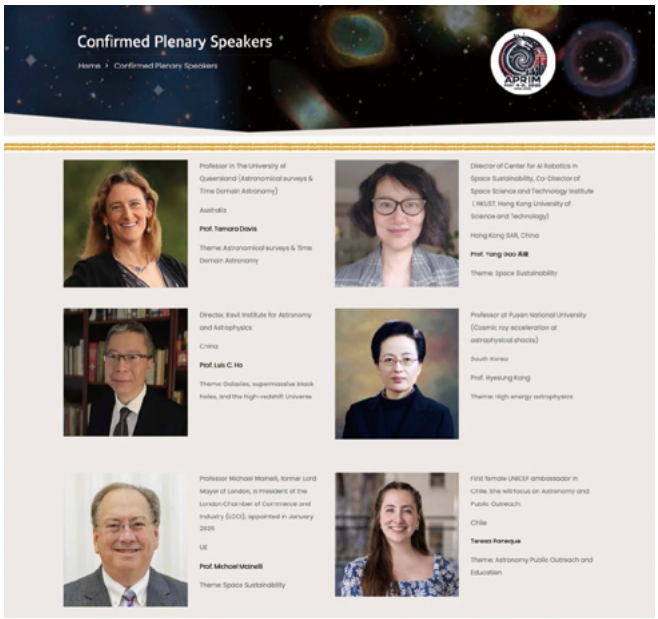
이와 같이 APRIM 2026은 순수 천문학 연구뿐 아니라 우주탐사와 우주환경, 교육 및 과학소통까지 포괄함으로써 현대 우주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학술회의의 성격을 갖추었다. 특히 첫 번째 주제로 '천문학 교육·대중소통 및 과학문화'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천문학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5-2. 주요 연사 및 국제적 구성

학술 프로그램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참여하였다. 플레너리 연사는 한국, 중국, 호주, 미국, 홍콩,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16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노벨상 수상자 1명(호주의 Brian Schmidt, 그림 3), 홍콩의 Shaw Prize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Shaw Prize 수상자 3명(호주의 Matthew Bailes, 미국의 Shri Kulkarni, 캐나다의 Victoria Kaspi), 그리고 미국의 Gruber 재단에서 수여하는 Gruber 상 수상자 1명(영국의 Max Pettini)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역대 APRIM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경력을 지닌 플레너리 연사진이었다. 한국인 플레너리 연사는 부산대 강혜성 교수(그림 4)이며, 현재 국제천문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림 3] 첫 번째 기조강연을 하는 노벨상 수상자 Brian Schmidt 호주 국립대 교수



[그림 4] 플레너리 연사 목록 일부. 오른쪽 열 가운데가 한국의 강혜성 교수

한 사람당 2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는 초청 강연자는 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손정주(교원대), 박창범(고등과학원), 이형목(서울대), 김효선, 변도영, 천무영(이상 천문연구원) 등 여섯 명이었다. 그림 5에는 한국 측 초청 연구자 일부의 발표 장면을 보여준다.

APRIM이 지역 회의인 만큼 연사 선정에서 국가별 안배도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한국은 중국,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초청연사 수로 보아 상위 그룹에 속한다.

그 밖에도 290개 정도의 일반 발표가 있었고, 이들을 모두 소화하기 위하여 5개의 분과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발표가 다른 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듣고 싶은 발표를 모두 듣기 어려웠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 1996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7차 APRIM이 단일 세션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연구도 다른 학문 분야와 함께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APRIM의 양적·질적 성장을 잘 보여준다.

APRIM 2026은 단순한 학술발표회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SKA 관련 특별 워크숍, 천문학 커뮤니케이션 포럼, 우주탐사 관련 특별회의 등 여러 분과 세션을 마련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를 촉진하였다.

또한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환영행사와 컨퍼런스 디너 등 사회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를 활용한 크루즈 형태의 만찬 등은 참가자들의 교류와 지역 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천문학과 문화예술의 융합도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 홍콩 출신 유명 음악가인 Shirley Choi가 “Hong Arts without Boundaries Foundation(香港共融藝術音樂協會)”의 후원을 받아 APRIM 2026을 위해 작곡한 “The Cosmic Concert - A Journey Through Space in 10 Parts”라는 관현악곡의 초연이 홍콩대학교 공연장에서 열렸으나 시간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번 회의에서는 우주와 우주론을 주제로 한 특별 음악 공연과 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천문학의 대중적 접근성과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림 5] 이번 APRIM에서 강연하는 한국인 초청 연사들. 왼쪽이 천문연 변도영 박사, 오른쪽은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이다. 나머지 초청 연사인 이형목(서울대), 천무영, 김효선(이상 천문연구원), 손정주(교원대)의 사진은 찍지 못해 싣지 못한다.

6. 의의 및 시사점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천문학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대형 지상망원경, 우주망원경, 전파간섭계, 중력파 검출기와 대규모 계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도 천문학 교육과 연구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APRIM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달성한 성과를 지역 전체의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APRIM은 단순히 3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라기보다, 아시아·태평양 천문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연구자와 기관, 국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지역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IAU 총회가 전 세계 천문학계의 최고 의사결정 및 학술교류의 장이라면, APRIM을 비롯한 지역회의는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각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구현하는 중간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APRIM의 의미는 단순히 많은 연구자가 모이는 데 있지 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구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범분야 지역회의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 천문학계 역시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젊은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PRIM 2026이 끝날 무렵, 베트남이 2029년 차기 APRIM의 유일한 유치 희망국으로 나섰다. 별도의 경쟁국이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베트남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PRIM 개최가 베트남 천문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 역시 3년 후 다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